

大學의 自律

—그 開放과 多元化—

康 宇 哲
(梨花女大 社會生活科 教授)

大學은 스스로 大學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끄는 힘이 생겨야만 한다. 이와 같은 創造的 力量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나 變換 없는 舊套속에서, 學問의 殿堂이라는 막연한 名分만을 내걸고 불타는 向學熱 위에 安住하는 데 그치고 만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는 意味에서도 開放性과 多樣性을 추구하는 研究와 企劃이 이루어져야 한다.

I. 大學을 이끄는 사람들

學生數가 急增하였다고 해서 大學人口의 適正線을 문제 삼던 일도 옛이야기가 되었다. 社會的 要諦을 國民經濟의 與件이 許容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大學들을 이끌어 가느냐는 문제가 당연히 提起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有形無形으로 政府의 指導力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느낌 속에 각 大學은 自律性의 喪失을 우려하는 풍토가 짙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大學이 獨自的인 方向을 찾으려고 個別的인 努力을 傾注하는 일에 대하여, 大學 스스로가 自省하거나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풍토가 또한 긴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日帝支配의 시간보다 더 긴 40年の 세월이 解放後 흘렀고 世上은 더 빠른 속도로 변하여가고

있는데 비해 大學의 內的 充實은 여터모로 미진한 데가 많다. 大學의 內的 充實을 한마디로 大學의 自律性 回復이라고 불려도 좋다. 이것은 大學이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가 변모시켜 나가려는 試圖이며 民族의 理想에 한걸음씩 접근하기 위한 原動力이기 때문에 大學에서의 教授, 研究 및 奉仕의 기능과는 다른 次元에서의 努力이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4年制 大學은 97個에 2,540個 學科, 5만명의 教授, 50만명의 學生을 受容하는 大集團이다(1982年 2月 現在). 이와 같이 肥大하여진 大文化圈이 매우 閉鎖的이며 거의 單一하고 類似한 理念(목적), 體制(운영), 教育課程(내용) 등으로 짜여 있다면 人口나 經濟能力에 비하여 적절한 構成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70年代의 이른바 實驗大學運營은 大學이 달라져야겠다는 첫번째 試圖였다는데 큰 뜻이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成課도 컸다고 본다. 그러나 이 좋은 試圖가 특히 私立大學의 個別性을 前提

로 하지 않은 改革이었기에 아직도 定着되지 못한 課題들(副專攻, 系列別入學 등)을 더 발전시켜 個別的이고 自意로운 試圖을 多樣化시켜 나가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大學에는 教育委員會와 같은 감독기관도 없고 獎學官과 같은 指導者도 없다. 大學 스스로 大學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스스로를 이끄는 힘이 생겨야만 한다. 이와 같은 創造的 集團이 大學社會 안에 생기지 않으면 大學은 언제나 변함없는 舊殼 속에서 學問의 殿堂이라는 막연한 名分만을 내걸고 向學熱에 불타는 국민들의 情熱 위에 安住하는 데 그치고 만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進學熱이 冷靜을 되찾을 것이며 이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大學은 開放性과 多樣性을 추구하는 研究와 企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II. 私立大學으로서의 個性

유럽의 大學에는 私立이란 概念이 없고 先進國으로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私立大學이 있으며 또 單線型學制인 것이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私立大學이 많아 全大學生數의 71%를 차지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며 大學編제도 철저하게 4年制中心인 것도 다를 것이다. 더구나 全國大學生數의 46%를 受容하는 서울特別市에는 國立綜合大學校가 단 1個校 밖에 없고 규모가 큰 私立綜合大學校들이 서울市內大學生의 90%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私立大學의 問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첫째가 個性이 없고 百貨店型으로 규모가 큰 綜合大學校이거나 아니면 綜合大學을 指向하는 單科大學들뿐이다. 그 원인은 設立 당시부터 傳統있는 國立大學들을 모델로 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또 認可條件도 이를 助長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大學의 類型이 극히 單一化되어 버렸으며 일제히 엘리트指向으로 흘러 버렸다. 그 중에는 蔚山工大와 같이 特性化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온 곳이나 西江大와 같이 小規模나마 限定된 學科로서 個性있는 教育을 시키고자 하는 大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도 數三年來 大勢에 몰려 그 個性을 점

차 잃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注視해야 할 患部の 하나인 것이다. 藝術系列의 單科大學이 하나도 없이 거개가 綜合大學 속에서 그 후광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어서 그 獨自性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醫科大學만으로 출발하는 듯한 大學이 곧 다른 人文·社會學科들을 設置하여 一般大學으로 변질하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4年制大學은 專門大學과 大學院의 존재를 意識한 體制構想이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大學院中心, 學部中心 또는 專門大學中心의 캠퍼스 등을 個性있게 꾸밀 수 있을 것이며 理工系, 醫藥系, 人文社會系, 自然科學系, 藝術系 등 어느 한쪽에 중심을 두는 大學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院 運營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大學들의 相互交流, 大學院의 各 專攻分野가 關聯研究所와 直結되는 制度의 構想은 같은 대학이 새로와질 수 있는 試圖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政府施策이 이러한 創意的 構想을 지원해 주지 못하거나 틀에 박힌 制度의 一般化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고 또 大學의 등록금도 통일되어 있는 까닭에 여러 가지로 운영상의 에로를 겪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劃一性이어야만 안정감을 얻는 인습에서 온 것이고 實利를 추구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私立大의 醫科大學의 수업료와 語文系學科의 그것은 더 큰 격차가 있어도 좋을 것이며 理工系는 주로 國立大에 의존한다든가 私立大의 農大는 政府支援을 擴大시킨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들이 全體 高等教育體制 안에서 構造的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노력이 傾注될 만하다. 어쨌든 大學이 多樣性 속에 統一을 얻는 社會集團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될 때 大學은 언제나 民族의 歷史, 人類의 文化와 더불어 호흡하는 生命體가 될 것이다.

III. 開放性을 찾는 氣運

우리 나라 大學의 氣質을 保守的이라고는 하지만 閉鎖的이라고 評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해방후 우리들의 大學은 약간의 日本制度에다가 잘못 인식된 美國制度까지 혼입되어 마치 이것이 大學의 基本型인 양 굳어 버린 느낌이다. 그

實例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教授와 學生이 學科에 所屬되어 緊縛된 狀態이며 他學科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다. 教授課程은 姑息의이고 他律的인 敎育과정 편성에다가 주로 時間講師에 依存하는 忘却地帶이고, 엄격한 學年制의 관습이 一般化되어 高等學校와 다를 바 없는 學生生活이어서 이 制度의 輪廻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름만의 選擇科目(특히 專攻部分)은 開設된 강좌수가 적어 사실상 必須와 區分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系列別入學이란 強制性이 아니면 도저히 발을 붙일 곳이 없고 副專攻이란 概念이 大學 속에 있기는 하나 實際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구체적 現象을 우선 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운영의 閉鎖性 즉 “變化에의 우려”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나라 大學文化의 水準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새로운 構想은 理想의이긴 하지만 우리 實情에 맞지 않는다는 反擊에 의해 거의 大學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한 價値基準은 態度化되어 언제나 安定만을 추구하는 데로 기울어져 왔다. 그리고 우리의 現在性이 곧 우리들의 것이며 變形된 것은 모두 남의 것이라고 하는 偏見이 作用한 것임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硬直된 制度, 運營하기 쉬운 制度가 大學의 本性은 아니다. 자칫하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나 理想을 追求하는 情熱이 식으면 進步는 停止되고 物量의 擴大에만 注力하면 企業化되고 만다. 우리는 어떤 大學이어야겠는가를 항상 되짚을 때 또 다른 내것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個別性和 開放性을 前提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奇異한 民主主義가 大學街에는 많다. 專任講師나 元老級教授나 그 役割이나 機能이 거의 같다. 學科長은 대개 輪番制이며 學處長도 비교적 任期를 잘 지킨다. 마치 行政府의 조직과 같은 因習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民主的 運營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다. 여기서 學科長이나 學處長의 職能이 곧 權限으로 變質되어 버리고 자동차로 通勤하는 上司라는 觀念이 생기기에 이른다.

副教授制가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대표적이

아닌가 한다. 專任講師에서 正教授까지 빠르면 10年內에 도달한다는 계산으로 大學奉職 30年을 平均値로 볼 때 우리나라는 正教授가 $\frac{2}{3}$ 이고 나머지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가 차지하는 宿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學科라는 客車 속에 교수, 학생, 敎科目을 싣고 40~50개의 車輛을 달고 질주하는 大學列車은 客車 사이의 來往도 없이 1年마다 한번씩 停車하며 所定人員(4年生)을 내려 놓고 그 자리에 그만큼 乘客을 다시 태워 또 달리고 있다. 途中下車도 별로 없고 乘客들은 年齡, 趣味, 成就能力 등 거의 同質들이 모인 集團이며 乘車와 下車 때의 感動(入學과 卒業)만이 크게 남을 뿐기 대했던 4年間의 成長度는 별도의 就職시험으로 判定받게 된다.

教授에 대해서도 chair professor, univ. professor 라는 개념이나 制度, 프랑스大學(College de France)의 名譽로운 講座담당 등 남의 이야기를 우리 나라에서도 꽃피울 수는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大學院進學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基礎科學大學이 英國의 Ox-Bridge 型이라고 한다면 그 밖의 職業系의 專門性大學은 實用性을 위주로 한 高級生産人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multi-versity의 概念이 現實적으로 展開되어 마땅하다. 各 大學이 모든 分野를 망라하기보다는 協業的인 體制이면서 相互紐帶를 잃지 않는 大學制度로 향했으면 한다.

大學을 卒業狀中心에서 論文通過制와 免許狀取得過程으로 二大區分하여 敎育시킨다는 意見은 다분히 反撥을 받을 요소가 있다. 그러나 生産性 있는 高等教育이 되기 위해서는 大學이 高級敎養을 주는 것만으로는 投資價値가 充分치 않다. 大學進學者들의 대부분은 就業을 희망하고 있다는 현실을 外面할 수 없어 이를 課題의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就業을 위한 또 한번의 試驗을 거치지 않더라도 社會에 進出시키는 大學이 되어야 할 것이다.

學生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學事編入, 勉學, 夜學(勤勞學生), 定時制 學點取得, 季節制 그리고 學科의 종류에 따라 다른 修業年限(免許取得과

정) 등 여러 가지 大學이 存立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要請과 課題들은 大學이 한 가지 類型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뜻이 되므로 여러 가지 類型의 大學을 設立하든가 아니면 한 대학에 여러 가지 性格을 包容하든가 하는 改革風土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社會가 필요로 하는 人材를 길러내기 위한 鑄型을 한 가지에서 수십 가지로 擴散시키는 노력을 한마디로 大學이 開放體制로 전환하는 戰略이라고 불러 보고자 하는 것이다.

IV. 大學의 세 가지 類型

大學教育은 國家나 時代에 따라 變型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形態로 운영되고 있다. 그것이 國家發展에 반드시 效率적인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歷史와 文化의 壓力으로 오랫동안 持續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나라와 같이 單線型 教育制度를 固守하고 있는 경우 좀처럼 多樣性 있는 體制로 전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의 大學教育의 類型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論할 수 있으며 이 類型의 諸特徵은 우리 나라 大學體制의 多元化를 促進시키는 자료가 될 것이다.

첫째는 엘리트指向型을 들 수 있다. 歷史적으로 보면 英國의 옥스포드나 劍橋大學은 上流社會出身의 國教徒 중에서 선발하였다. 入學後 科目中心課程을 古典의 形態로 敎育받게 되며 專攻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卒業狀은 社會에서 높이 評價되고 才能과 人格을 인정받았다.

20世紀에 이르러 貴族名門 出身보다는 才能中心의 선발에 力點을 두어 平民出身 엘리트와 貴族出身이 共存 경쟁하거나 二元制로 併置하는 제도 등이 생겨났다. 이 類型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大學의 理想型 또는 最高型이며 이른바 象牙塔의인 映像이다.

둘째로는 生産指向型을 들 수 있다. 19世紀 후반 英國의 런던大學은 이른바 市民大學으로서 紳士와 專門의 職業人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敎育機關으로 發展하였다. 中産層의 擴大와 生活水準上昇과 勤勞者層의 수적 증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女性에게도 이 大學은 開放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南北戰爭 이후 Land Grant College를 세워 農民과 근로자들을 위한 大學이 늘어났고 短期敎育, 夜間敎育, 延長敎育 등 多樣한 과정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大學이 반드시 學問性과 古典性만을 유지 保存해야 한다는 傳統主義에 修正을 가한 제도였다.

미국의 州立大學과 地域社會大學은 이 概念을 일층 발전시켜 生産指向型 大學들은 研究重點에서 敎授中心으로 옮겨지고 英國의 경우는 Politechnics를 발전시켰다. 이들 大學은 産業構造, 人口移動 등에 따라 人力의 需給計劃과 관련되는 敎育으로서, 高度의 專門技術職으로서 事務員, 技能工, 技術者, 科學者, 學者 등 高級人力을 확보하는 生産指向型의 大學은 各國의 사정에 따라 또 다른 類型들이 생겨나서 資源이 없는 나라, 複線型 教育制度의 나라, 新生國家 등 각기 特徵的 大學制度를 만들어 내었으며 엘리트敎育을 排除하지 않으면서도 國家發展에 직접 공헌하는 大學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째로 普遍指向型 大學敎育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美國의 地域社會大學이나 英國의 開放大學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大學敎育을 普遍化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入學을 開放하는 制度이다.

이 開放體制에서는 엘리트型이나 生産型보다 對象의 幅이 넓고 다양하다. 授業年限, 授業形態, 專攻課程들이 실로 다양하며 敎育의 水準과 方向도 個人中心의 體制를 이룬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放送通信大學이 이 범주에 가까운 敎育기관이라고 생각된다.

V. 政策的 次元에서의 誘導方向

大學의 開放體制와 多元化를 위해서 各 大學의 個性 있는 發展을 돕는 政策方向은 대학과 정부가 일치된 방향을 찾아, 적극적인 協力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4年制大學은 入學制度, 入學者年齡, 敎育課程 등이 硬直되어 있고 定時制(part time system), 資格證制 등이 없거나 未洽하다. 專門大學은 냉대받고 있으며 延長敎育을 받을 기회

는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大學院中心大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伸縮性 있는 運營을 위해서는 1年마다 修了證을 주어 다시 修學이 가능토록 하는 制度도 허용하며 勤勞者를 위한 夜間講義는 용감하게 大幅 증가시킨다. 學部水準에서 지나치게 細分된 專攻의 統廢合은 시급하면서도 손대지 못하는 속제 중의 속제임을 다시 한번 認識하면서 個性 있는 대학을 만들려는 側과 이를 全國的 設計 안에서 다양하게 허용하는 政府側의 協助가 있어야 하겠다.

文教部 안에서 大學과 專門大學의 政策에 連繫性이 약하며 社會에서의 專門大學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여 成績未達性의 受容處로 해석한다. 政府의 積極적인 支援으로 점차 國立化한다든가 誘因體制를 강구하면 그 영향이 4年制大學 偏重의 그릇된 현상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專門大學의 문제가 4年制大學과는 別個의 內容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硬直性, 單線型을 助長한다.

따라서 모든 高等教育機關(專門大學, 大學, 大學院)을 한 體制 안에 두고 이를 構造的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그 方向을 開放性에다 두자는 것이다. 高等教育機關에 대하여 그 運營者

를 감독해야만 했던 20年前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行政府나 大學自體의 大學觀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大學發展을 저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獨立된 單科大學의 長도 總長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신 단과대학의 特性을 살리도록 하며 專門大出身도 大學 3년에 編入할 수 있는 길을 몇 군데 더 주어야 할 것이며, 夜間制나 定時制(part time system)를 더 장려하여 勤勞學生의 수효를 늘려 나가는 政策이 과감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卒業狀中心에서 免許狀中心이 되는 大學이 늘어나도록 誘導하기 위한 靑寫眞이 하루속히 꾸며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大學은 너무나도 한 가지 類型에만 따르고 있어 新生大學들조차 엘리트指向으로 흐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法律이나 制度가 우선 엘리트指向性이 강한 古典形態라는데도 큰 원인이 있으며 대학(고등교육)을 이끄는 사람들의 集團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落後된 現象이라고도 보여진다. 대학에 個別性, 多樣性을 주는 開放體制는 대학교육의 經濟性과도 통하는 政策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